

기혼여성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 배우자 책임귀인의 매개효과*

김민혜** · 유순화*** · 정애리****

| 목차 |

- | | |
|---------|-------------------|
| 1. 서론 |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
| 2. 연구방법 | 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
| 1) 연구대상 | 3) 측정모형의 검증 |
| 2) 측정도구 | 4) 구조모형의 검증 |
| 3) 자료분석 | 5)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
| 3. 연구결과 | 4. 논의 |

| 초록 |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배우자 책임귀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A와 B시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485부를 수집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2부를 제외한 48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배우자 책임귀인, 부부친밀감 간에는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배

* 이 논문은 김민혜(2023)의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으며, 2025년 정부재원(교육부 4단계 BK21 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제1저자: 부산대학교 kima84@hanmail.net

***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shyoo@pusan.ac.kr

**** 공동저자: 부산대학교 -0721-@hanmail.net

우자 책임귀인에 대하여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었고,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부친밀감, 배우자 책임귀인과 부부친밀감은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둘째, 최종 모형에서 기혼여성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부친밀감 간의 관계에서 배우자 책임귀인이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을 논의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부부친밀감, 배우자 책임귀인, 기혼여성, 매개효과

1. 서론

사람은 대부분 가족이라는 체계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며 성인이 된 이후 많은 경우에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한다. 최근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생겨나고 남녀 간의 결혼 역시 선택 사항으로 보는 관점이 대두되었지만, 아직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인간 삶의 중요한 과정으로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신소희, 김정은, 남영주, 2021).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이 된 후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것은 일반적인 발달 과업 중 하나로 여겨진다. 가족 중 부부는 가족 체계의 핵심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마음을 나누며 친밀감을 가지는 관계이다(정복자, 2015). 과거의 확대가족이 현대에는 부부가 중심이 되는 핵가족으로 변화함에 따라 부부간의 사랑과 친밀감이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었으며, 부부관계도 수직적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는 수평적 관계로 점차 바뀌고 있다(박민지, 2005; 최화석, 2013). 부부관계에서 경험하는 친밀감은 결혼의 안정성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Boden, Fischer, & Niehuis, 2010; O'Brien & Peyton, 2002). 부부친밀감이란 부부가 느끼는 인지적, 정서적, 성적 가까움을 의미하는데(이경희, 1995; Moss & Schwebel, 1993), 이는 결혼생활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다툼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다(윤인지, 2016).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부친밀감이 향상될 때 서로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여 상호작용을 보다 활발히 하고 부정적 갈등 해결 방식을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혜숙, 1993; 이경희, 1998). 부부친밀감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배우자에게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하고, 자신을 개방할 때 배우자가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조성하여, 부부생활의 질과 정서,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켰다(Epstein & Baucom, 2002). 성에 대해서도 부부는 성을 관계를 증진하는 측면으로 받아들이 이에 대하여 개방적이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성의 역할을 자녀 출산뿐만 아니라 부부간에 애정과 즐거움을 나누는, 친밀감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인지, 2016; Litzinger & Gordon, 2005).

반면 부부친밀감의 결여는 부부의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장선웅, 정혜정, 이주연, 2011). 선행연구들은 부부친밀감의 저하가 부부의 심리 사회적 부적응과 정서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부부관계 만족을 떨어뜨리며 부부 갈등을 유발하여 이혼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고 밝히고 있다(한기명, 양혜정, 2020; Roberts, 2004). 통계청(2021)은 기혼여성의 혼인 중단 원인의 절반 이상이 부부관계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이라고 하였다. Moss와 Schwebel(1993), Waring(1984)도 부부친밀감 결여가 빈번하게 이혼 사유로 거론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부부친밀감이 부부의 결혼 적응과 가족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특히 여성은 결혼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 부부관계의 질이나 부부친밀감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Beam 외(2018)는 부부관계의 여러 요인들 간 상관성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으며, 질 낮은 결혼이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친밀감이 남성보다 여성의 결혼생활에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부친밀감은 자녀 양육에도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부친밀감이 높은 여성이 자녀에게 더 집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애정적이

었다(장선웅, 2008; Petterson, 1984). 최윤경(2015)은 부부친밀감이 높은 여성의 경우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 행동을 보이고, 거부·제재하거나 허용·방임적인 양육 행동은 적게 보인다고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가족문화에서는 여성이 자녀 양육에 대한 암묵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사노동과 함께 자녀 양육은 여성의 역할로 요구되고 있다(장유나, 윤미리, 홍세희, 2020).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22)의 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양육자 중 여성은 남성에 비해 2배 이상의 가사노동을 하며, 돌봄에 남성보다 1.6배에 가까운 시간을 소요한다. 현대 사회는 남녀 모두 맞벌이를 선호하지만, 양육과 돌봄, 가사 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존재하며, 특히 여성은 돌봄의 주체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남성에 비하여 기혼여성의 부부친밀감은 건강한 자녀와 가정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기혼 여성의 부부친밀감과 관련된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선행연구들은 기혼여성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함으로써 부부관계의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언급하고 있다(길영란, 2012; 이지영, 권석만, 2010). Garnefski, Kraaij와 Spinhoven(2001)은 인지적 처리 과정이 행동보다 선행한다고 하면서 행동적 정서조절 전략보다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는 것에 주목하였는데,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정서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정보를 인지나 사고를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부부관계의 질을 표현하는 개념 중 결혼 만족도와 함께 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부부관계의 친밀감은 결혼 만족도의 핵심적인 요소로(Patrick et al, 2007), 부부친밀감이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에(김정희, 2019; 박희정, 변상해, 2017; Patrick et al., 2007), 이를 바탕으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부친밀감의 관계 역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결혼 만족도는 결혼생활의 전반

적인 점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반면 부부친밀감은 부부 두 사람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상호성과 공유성을 나타내므로 결혼 만족도보다 부부친밀감이 부부관계의 질을 묻는 개념으로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이경희, 1995). 그러나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결혼 만족도에 대한 연구였고(김두길, 유영달, 2015; 김성미, 이수림, 2018; 송종원, 김두길, 2017),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부친밀감에 대한 국내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국외의 경우에도 관련 주제에 대한 소수의 연구가 있을 뿐 매우 제한적이었다(Hamedanil & Jahromi, 2019).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으로 나뉘는데,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불쾌한 정서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전략을 의미한다(안현의, 이나빈, 주혜선, 2013).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주어진 상황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사건을 덜 심각하게 해석하도록 하며,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구자윤, 2021; 김소희, 2004). 이 전략은 심리적 안녕감이나 생활 만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촉진함으로써 삶의 만족을 높여준다(임전옥, 장성숙, 2003; King et al., 2006).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생활 스트레스를 낮추어 삶의 만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설정훈, 박수현, 2015), 자신의 정서 상태를 지각하게 하여 부적응적인 정서와 강화된 부정성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ridges & Grolnick, 1995; Halberstadt, Dunsmore, & Denham, 2001).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불쾌한 정서를 축적하고 악화시키는 전략이다(이지영, 권석만, 2010).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주어진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계속 몰두하거나 자신 또는 타인을 비난하도록 만든다(구자윤, 2021).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불안(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우울(하혜신, 김은정, 2007), 자살생각(최우경, 김진숙, 2014) 등을 높이고 심리적 안녕감을 저해할 수 있다(김소희, 2004). 사람이 정서를 인지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부정적인 감

정에 빠지기 쉽고 자신의 목표와 관련이 없거나 부정적인 정보 처리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불쾌한 정서를 유도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Joormann & Siemer, 2011).

이러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친밀감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안현의, 이나빈, 주혜선, 2013; 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Gross, 1998). 정서조절은 개인내적 혹은 대인관계에서 필수적인 발달과제로서, 부부관계가 지극히 개인적이고 다양한 감정을 주고 받는 대인관계임을 고려할 때,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그 사용에 따라 부부친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나(김희경, 이완정, 2022)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한기명, 양혜정, 2020).

개인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사용에 실패하면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고 상대방의 행동을 왜곡해서 해석하거나 파국적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길영란, 2012). 결혼생활 중에 발생하는 사건이나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귀인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는 것은 부부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다(Kimmes & Durtschi, 2016). 부부는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평소 배우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태도나 신뢰감, 이전 경험의 기억들 때문에 상황과 행동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구아영, 2000; L'Abate, 1999). 부부가 상황을 다르게 지각하는 것은 '귀인'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정문경, 2020). 부부관계를 다룬 연구에서 귀인은 인과귀인과 책임귀인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Baucom, Sayers, & Duhe, 1989; Fincham & Bradbury, 1987). 인과귀인이란 자신이나 상대에게 일어난 사건 혹은 행동의 원인을 지각할 때 그 원인을 추론하는 과정을 의미하며(Weiner, 1985), 책임귀인이란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사건이나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행동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Fincham & Bradbury, 1990).

부부와 같은 친밀한 양자관계를 다룬 연구에서는 인과귀인보다 책임귀인이 더 적합한데(정문경, 2020; Fincham & Bradbury, 1992; Shaver, 1985),

인과귀인은 부부의 개인적인 요인을 고려하는 반면 책임귀인은 부부관계의 맥락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곽성정, 우정희, 김남이, 2018; 최수영 2020). 인과귀인이 배우자 행동의 원인을 단순히 내적, 외적 요인으로 밝히는 것이라면(이경성, 한덕웅, 강혜자, 1995; 이경성, 한덕웅, 2001), 책임귀인은 자신이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상대방의 행동을 칭찬 또는 비난의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다(Fincham, Beach, & Nelson, 1987).

배우자 책임귀인의 평가 기준은 상대방 행동에 대한 의도성(intent), 이기적인 동기(selfish motivation), 비난받을 만함(blameworthy)으로 구성되어 있다(Fincham & Bradbury, 1990). 아내가 남편에게 책임귀인을 하면 남편의 행동이 의도적이고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으며 비난받을 만하다고 여길 가능성이 있다(Fincham & Bradbury, 1992).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높은 적대감과 분노를 나타낼 수 있으며, 상대에 대한 폭력성이 커질 수 있다(양동욱 외, 2012; 정이랑, 2013). 또한 아내는 본인의 책임을 부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우성범 외, 2009; Bradbury et al., 1996; Miller & Bradbury, 1995)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행동을 증가시켜 시간이 흐를수록 부부간의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Fincham & Bradbury, 1987). 아내가 배우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이후에도 상대방이 유사한 행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하기에 부부친밀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경성, 한덕웅, 2001; Kimmes & Durtschi, 2016). 즉 부부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책임귀인하는 것은 부부친밀감을 저해하여 안정적인 부부관계 형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김지현, 2006; 안수진, 1997; 우성범 외, 2009; 유소영, 2000; 정문경, 2020; Fincham & Bradbury, 1992).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보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사용에 따라 부부친밀감과 배우자 책임귀인이 달라졌으며, 배우자 책임귀인을 할수록 부부친밀감이 낮아졌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사용

은 부부친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배우자 책임귀인을 경유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끼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부친밀감 간의 관계를 예상할 수 있으나 기혼여성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부친밀감, 배우자 책임귀인이라는 세 변인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배우자 책임귀인, 부부친밀감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검토하여 기혼여성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배우자 책임귀인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부친밀감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궁극적으로 배우자 책임귀인의 역할을 확인하여 부부친밀감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부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부부를 상담할 때, 실제적인 개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기혼여성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배우자 책임귀인을 매개로 하여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기혼여성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배우자 책임귀인, 부부친밀감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기혼여성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배우자 책임귀인이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A, B시에 소재한 20~60대의 기혼여성 485명을 대상으로 2022년 9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기혼여성이 많이 방문

하는 카페에서 카페 사장님의 동의하에 실시되었으며, 주변 지인의 도움을 통해 그들의 직장, 교회, 교육기관, 동호회에서도 자료가 수집되었다. 설문조사 이전에 참여자들에게 설문 목적, 참여자의 권리, 비밀 보장에 대한 설명이 적힌 안내문을 배부하였고, 이에 대한 참여자들의 동의를 받은 후 설문이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과 지면의 방법이 함께 사용되었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거된 응답지는 총 485명이었다.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을 하였다고 판단한 2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483부의 설문조사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483)

구분	항목	빈도(%)
연령	20대	4(8)
	30대	144(29.8)
	40대	260(53.8)
	50대	68(14.1)
	60대	7(1.4)
자녀수	현재 없음	67(13.9)
	1명	138(28.6)
	2명	224(46.4)
	3명 이상	54(11.2)
결혼기간	1년 미만	10(2.1)
	1~5년	68(14.1)
	6~10년	145(30.0)
	11~15년	113(23.4)
	16~20년	64(13.3)
	21~25년	38(7.9)
	25년 이상	45(9.3)
합계		483(100)

2) 측정도구

(1)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측정하기 위해서 Gamefiski, Kraaij와 Spinhoven(2001)이 개발한 인지적 정서조절 질문지(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QR)를 김소희(2004)가 번안하고, 안현의, 이나빈과 주혜선(2013)이 한국판(K-CERQ)으로 타당화한 것(K-CERQ)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5문항이며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수용, 해결중심사고, 균형있게 바라보기, 긍정적 재초점, 긍정적 재평가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파국화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그 인지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현의, 이나빈과 주혜선(2013)의 연구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2였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수용 .69, 해결중심사고 .84, 균형있게 바라보기 .63, 긍정적 재초점 .89, 긍정적 재평가 .89로 나타났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전체 신뢰도는 .92였으며, 하위요인은 자기비난 .83, 타인비난 .87, 반추 .76, 파국화 .79 였다. 본 연구에서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전체 신뢰도는 .85였으며, 하위요인은 수용 .67, 해결중심사고 .61, 균형있게 바라보기 .66, 긍정적 재초점 .83, 긍정적 재평가 .81로 나타났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전체 신뢰도는 .84였으며, 하위요인은 자기비난 .70, 타인비난 .74, 반추 .68, 파국화 .84로 나타났다.

〈표 2〉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내용	문항수	신뢰도
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	수용	어떤 경험, 사건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계 없이 자신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것	3 .67
	해결중심 사고	앞으로 부정적 사건을 어떻게 조절하고 다음에 어떤 단계를 밟아갈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	4 .61
	균형있게 바라보기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상대성을 강조하거나 현재 사건의 심각성을 덜도록 관점 전환을 돕는 것	4 .66
	긍정적 재초점	실제 사건을 생각하는 대신에 즐겁고 유쾌한 생각을 하도록 도와 사건과 아무 상관없는 즐거운 일을 생각하거나 기분 좋은 것을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	4 .83
	긍정적 재평가	자신이 겪은 상황으로부터 긍정적 측면이나 의미를 찾아내는 생각을 하도록 돕고, 그 일로 인해 자신이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도록 촉진하는 것	4 .81
전체		19	.85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	자기비난	어떤 경험이든 스스로를 비난하는 생각을 하는 것	4 .70
	타인비난	자신에게 벌어진 일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거나 남들이 잘못된 점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4 .74
	반추	부정적 사건과 연관된 감정을 되짚어 생각하거나 관련된 생각과 감정에 빠져있도록 만드는 것	4 .68
	파국화	경험의 공포스러운 면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나쁜 경험을 했다는 생각을 하게 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최악으로 여기도록 만드는 것	4 .84
전체		16	.84

(2) 부부친밀감

부부친밀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이경희(1995)가 개발하고 이경희(1998)가 수정·보완하여 타당화 한 후 정문경(2020)이 사용한 부부친밀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부친밀감 척도는 총 15문항이며 인지적 친밀감, 정서적 친밀감, 성적 친밀감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양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

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친밀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문경(2020)의 연구에서 부부친밀감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1이었고,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인지적 친밀감 .82, 정서적 친밀감 .81, 성적 친밀감 .8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90이었으며, 하위요인은 인지적 친밀감 .81, 정서적 친밀감 .75, 성적 친밀감 .90으로 나타났다.

〈표 3〉 부부친밀감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내용	문항수	신뢰도
인지적 친밀감	배우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결점까지도 이해하고 수용하는 정도	5	.81
정서적 친밀감	배우자에게 언어적 표현이 없어도 느끼는 심리적 밀접함의 정도	5	.75
성적 친밀감	성적 욕구가 만족스럽게 충족되며 이를 위해 기꺼이 노력하는 정도	5	.90
전체		15	.90

(3) 배우자 책임귀인

본 연구에서는 Fincham과 Bradbury(1992)가 기존에 친밀한 관계의 귀인양식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역동적인 척도(The Dynamic Attribution Inventory: DAI, Baucom, Sayers & Duhe, 1989)와 부부 귀인양식 질문지(Marital Attribution Style Questionnaire: MASQ, Fincham, Beach & Nelson, 1987)를 수정 보완하여 만든 관계귀인 질문지(Relationship Attribution Measure; RAM)를 안수진(1997)이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과귀인 3차원과 책임귀인 3차원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책임귀인 3차원만 사용하였다. 척도는 긍정적인 사건 2개, 부정적인 사건 8개의 10가지 문항에 대해 상대방 행동의 의도성, 이기적인 동기, 비난성의 세 가지 차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6점)'까지

6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총 30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그 총점을 전체 귀인점수로 사용하였고, 긍정적 사건 2개의 비난성 차원의 경우에는 역으로 채점하였다. 정문경(2020)의 연구에서 배우자 책임귀인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5였고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의도성 .87, 이기적인 동기 .92, 비난성 .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95였으며, 하위요인 신뢰도는 의도성 .85, 이기적인 동기 .93, 비난성 .87로 나타났다.

〈표 4〉 배우자 책임귀인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내용	문항수	신뢰도
의도성	한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의도적으로 행하였는지 실수로 행하였는지에 대한 차원	10	.85
이기적인 동기	발생한 것이 행위자의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발생하였는지 아닌지에 대한 차원	10	.93
비난성	행위자가 비난받아 마땅한지에 대한 차원	10	.87
전체		30	.95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6.0과 Amos 26.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모형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기혼여성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배우자 책임귀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부부친밀감, 배우자 책임귀인의 기술통계치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주요 변인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면, 각 요인의 왜도 값은 0.58~0.35, 첨도 값은 0.85~1.31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West, Finch와 Curran(1995)에 의하면, 다변량 측정 변인의 왜도는 2보다 작고 첨도는 7보다 작은 경우 정규성 가정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 변인들은 모두 정규성 가정이 위배되지 않았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정규 분포성의 가정을 충족하였다.

<표 5> 측정변인의 기술 통계치

(N=483)					
척도	하위요인	M	SD	왜도	첨도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수용	3.70	0.60	0.40	0.71
	해결중심사고	3.98	0.54	0.55	1.31
	균형있게 바라보기	3.57	0.54	0.28	0.67
	긍정적 재초점	3.30	0.74	0.06	0.15
	긍정적 재평가	3.71	0.69	0.50	0.36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자기비난	3.00	0.67	0.05	0.42
	타인비난	2.76	0.67	0.35	0.44
	반추	3.34	0.68	0.23	0.27
	파국화	2.74	0.74	0.31	0.22
부부 친밀감	인지적 친밀감	3.65	0.64	0.58	0.62
	정서적 친밀감	3.39	0.79	0.41	0.30
	성적 친밀감	3.19	0.87	0.43	0.10
배우자 책임귀인	상대방 행동의 의도성	2.73	0.94	0.34	0.31
	이기적인 동기	2.83	1.19	0.23	0.85
	비난성	3.04	1.05	0.02	0.78

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부부친밀감, 배우자 책임귀인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pe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중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부친밀감 ($r=-.10, p<.05$),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배우자 책임귀인 ($r=.35, p<.01$), 배우자 책임귀인과 부부친밀감 ($r=-.41, p<.01$)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중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경우, 부부친밀감 ($r=.28, p<.01$)과는 상관을 보였으나 배우자 책임귀인 ($r=.00, p>.05$)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서영석(2010)이 언급한 매개효과 검증에 위한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이후 분석에서 제외하고, 상관관계가 나타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부부친밀감, 배우자 책임귀인을 변인으로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표 6>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1	2	2-1	2-2	2-3	2-4	3	3-1	3-2	3-3	4	4-1	4-2	4-3
1.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													
2.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05	-												
2-1. 자기비난	-.16**	.65**	-											
2-2. 타인비난	-.05	.59***	.02	-										
2-3. 반추	-.18**	.78**	.50**	.21**	-									
2-4. 파국화	.13**	.85**	.37**	.46**	.54**	-								
3. 배우자 책임귀인	.00	.35 [△]	.19**	.28**	.21**	.33**	-							
3-1. 의도성	.01	.34**	.17**	.26**	.20**	.33**	.90**	-						
3-2. 이기적인 동기	.00	.35**	.19**	.27**	.21**	.32**	.96**	.84**	-					
3-3. 비난성	.01	.30**	.18**	.23**	.18**	.27**	.91**	.69**	.8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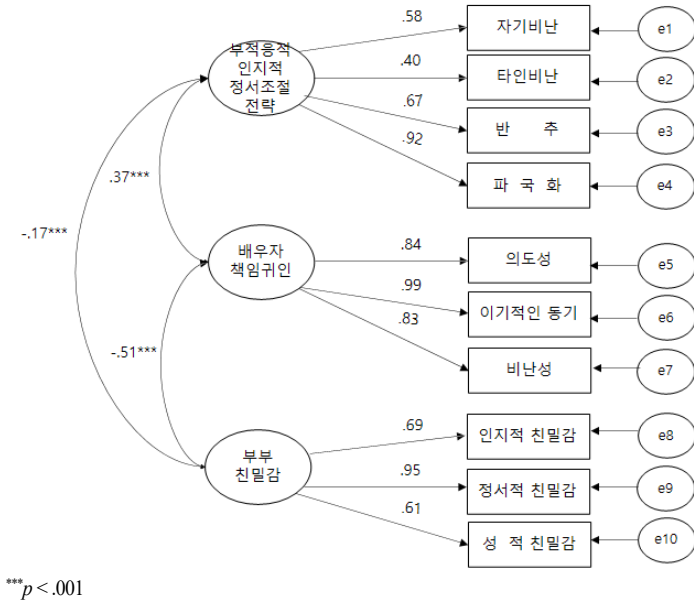
	1	2	2-1	2-2	2-3	2-4	3	3-1	3-2	3-3	4	4-1	4-2	4-3
4. 부부친밀감	.28**	-.10*	-.02	-.05	.03	-.20**	-.41**	-.33**	-.41**	-.38**	-			
41. 인지적 친밀감	.37**	-.12**	-.01	-.07	.03	-.24**	-.35**	-.33**	-.34**	-.30**	.80**	-		
42. 정서적 친밀감	.18**	-.13**	-.02	-.10*	-.00	-.19**	-.48**	-.42**	-.48**	-.43**	.88**	.64**	-	
43. 성적 친밀감	.20**	-.02	-.03	.04	.05	-.09*	-.22**	-.12**	-.23**	-.24**	.84**	.45**	.57**	-

* $p < .05$, ** $p < .01$

3)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의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각각의 측정변인들이 해당되는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모형에서는 세 가지의 잠재변인으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부부친밀감, 배우자 책임귀인을 구성하였으며, 각 잠재변인의 측정변인은 각 척도의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파국화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부부친밀감은 인지적 친밀감, 정서적 친밀감, 성적 친밀감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배우자 책임귀인은 상대방 행동의 의도성, 이기적인 동기, 비난성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잠재변인의 측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세 개의 잠재변인 간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측정모형의 절대 적합도 지수는 <표 7>과 같이 $\chi^2=165.06(df=32, p < .001)$ 으로 유의미하였다. χ^2 의 값은 표본크기, 관찰 변수의 개수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므로 χ^2 의 값이 유의미하다더라도 표본의 크기에 덜 민감하며 간명성이 있는 다른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여 측정모형이 적합한지를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비교적 표본 크기에 덜 민감한 지수들은 NFI=.93, TLI=.92, GFI=.93, CFI=.94로 .90이상이므로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RMSEA=.09로 .08~.10에 해당하기에 모형의



〈그림 1〉 측정모형 검증 결과

적합도가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배병렬, 2011; 한다솜, 김동일, 2022; Browne & Cudeck, 1992). 측정모형 검증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최소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측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7〉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 분석 결과

(N=483)

모형	χ^2	df	NFI	TLI	GFI	CFI	RMSEA
측정모형	165.06	32	.93	.92	.93	.94	.09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타인비난을 제외한 측정변인들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58~.99로 나타나 .5 이상이라는 적합도 기준을 만족한다(우중필, 2015). 타인비난의 요인부하량은 .4지만 Regression Weights의 P값이 유의하므로 .3미만이 아

나라면, .5 미만이 나왔더라도 약간이나마 설명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김성은 외, 2018).

또한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측정변인들의 잠재변인이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기에 측정모형에서 이들 3요인으로 구조모형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C.R. 값은 모두 6.00 이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값을 통하여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부부친밀감, 배우자 책임귀인은 각각의 측정변수에 의하여 잘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인	관측변인	Estimate		S.E.	C.R.
		B	β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 자기비난	0.57	.58	.05	11.51***
	→ 타인비난	0.40	.40	.05	8.17***
	→ 반추	0.67	.68	.05	13.05***
	→ 파국화	1.00	.92		
부부 친밀감	→ 인지적친밀감	0.82	.69	.07	12.53***
	→ 정서적친밀감	1.41	.95	.11	12.90***
	→ 성적친밀감	1.00	.61		
배우자 책임귀인	→ 상대방행동의의도성	1.00	.84		
	→ 이기적인 동기	1.50	.99	.05	29.42***
	→ 비난성	1.10	.83	.05	23.66***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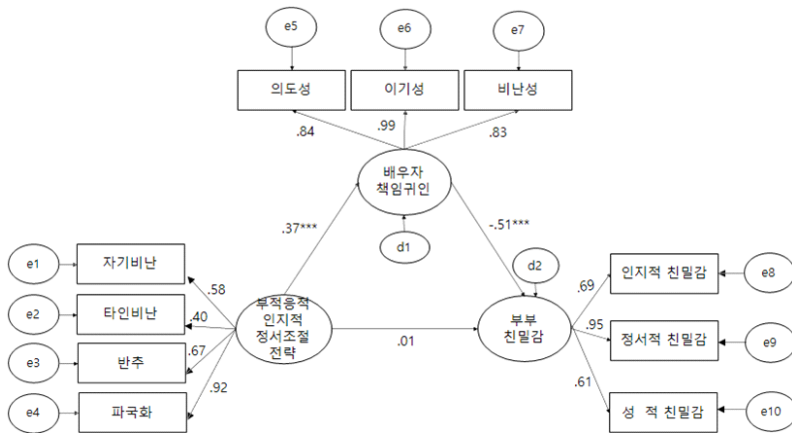
다음으로 측정모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파악하는 분산추출지수(AVE)와 개념신뢰도(C.R.)를 검증하여 〈표 9〉와 같이 정리하였다. 평균분산추출지수는 $.91 \leq AVE \leq .96$ 으로 .5 이상이었고, 개념신뢰도는 $.97 \leq C.R. \leq .99$ 로 .7 이상이었기에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부부친밀감, 배우자 책임귀인의 잠재변인은 각각의 측정변수들에 의하여 잘 측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잠재변인의 평균분산추출지수와 개념신뢰도

잠재변인	관측변인	평균분산추출지수 (AVE)	개념신뢰도
부적응적 인지적정서조절 전략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파국화	.92	.98
부부 친밀감	인지적친밀감 정서적친밀감 성적친밀감	.91	.97
배우자 책임귀인	상대방행도의의도성 이기적인동기 비난성	.96	.99

4) 구조모형의 검증

최종모형의 직접 효과크기와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 2〉에 제시되었고, 그림에 기재된 직선의 수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의미한다.



** $p < .01$, * $p < .05$

〈그림 2〉 최종 검증된 연구모형 경로계수

경로계수 및 유의도는 <표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부부친밀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지만($\beta=.01, p>.05$), 배우자 책임귀인에는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쳤고($\beta=.37, p<.001$), 배우자 책임귀인 역시 부부친밀감에 유의미한 부적영향($\beta =-.51, p<.001$)을 미쳤다. 이를 통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직접적으로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배우자 책임귀인을 매개하여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도 검증 결과

경로		B	S.E.	C.R.	β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배우자 책임귀인	.43	.06	7.24	.37***
배우자 책임귀인	→ 부부친밀감	-.35	.04	-8.52	-.51***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 부부친밀감	.01	.04	.30	.01

*** $p < .001$

5)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기혼여성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부친밀감 간의 관계에서 배우자 책임귀인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신뢰구간 95%에서 검증하였으며,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는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김수영, 2016). 또한 최종모델의 총 효과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나누어 추정하고,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효과분해 및 간접효과의 유의성 결과는 <표 11>과 같다.

결과에 따르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부부친밀감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에서 배우자 책임귀인이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직접효과($\beta=.01, p>.05$)는 유의하지 않고 간접효과($\beta=.19, p<.05$)와 총효과($\beta=.18, p<.05$)는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기혼여성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부부친밀감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배우자 책임귀인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은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 효과분해 및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관계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β	95% CI(BC)	β	95% CI(BC)	β	95% CI(BC)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배우자 책임귀인	.37*	(.28, .45)			.37*	(.28, .46)
배우자 책임귀인 → 부부 친밀감	-.51*	(-.57, -.43)			-.51*	(-.59, -.43)
부적응적 인지적정서조절전략 → 부부 친밀감	.01	(-.09, -.13)	-.19*	(-.24, -.13)	-.18*	(-.27, -.08)

* $p<.05$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배우자 책임귀인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검증 결과, 기혼여성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배우자 책임귀인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배우자 책임귀인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혼여성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부부친밀감, 배우자 책임귀인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그 중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배우자 책임귀인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배우자 책임귀인 간에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가진다고 밝힌 여러 선행연구(길영란, 박미란, 이지연, 2016; Gurman & Fraenkel, 2002; Tashiro & Frazier, 2007)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기혼여성이 자신의 불쾌한 정서를 축적하고 악화시킬 때,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해석과 왜곡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배우자의 행동을 더 의도적이며 이기적이고 비난받을 만하다고 귀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부친밀감 간의 관계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김희경, 이완정, 2022; 한기명, 양혜정, 2020). 이와 같은 결과는 기혼여성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배우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결점까지 이해하며 수용하는 정도가 낮고, 배우자와 심리적으로 가깝지 않으며, 성적 욕구의 만족이나 노력 정도가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혼여성의 배우자 책임귀인과 부부친밀감도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아내의 배우자 책임귀인과 부부친밀감 간에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가진다고 밝힌 선행연구(정문경, 202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길영란, 박미란과 이지연(2016)은 배우자 책임귀인이 결혼만족과 부적상관을 가진다고 하였는데, 결혼만족의 핵심요인이 부부친밀감이기에(Patrick et al., 2007) 길영란, 박미란과 이지연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배우자 책임귀인과 부부친밀감 역시 부적상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배우자의 행동을 의도적이고 이기적인 동기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비난받을 만하다고 여기는 것이 부부친밀감을 낮추는 요인일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부

친밀감 간의 관계를 배우자 책임귀인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개효과와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부부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배우자 책임귀인의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혼여성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사용 자체가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기혼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책임귀인을 하도록 만들며 이것이 부부친밀감을 저하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혼여성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할수록 배우자 책임귀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길영란, 박미란과 이지연(201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아내의 회피대처행동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배우자 책임귀인의 완전매개효과를 검증한 정문경(2020)의 연구와도 유사하다.

이상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와 이에 따른 상담적 개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여성이 결혼생활과 관련해 배우자에게 책임귀인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을 부정하고 배우자를 탓하여 결국 부부친밀감 형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강혜숙, 김영희, 2008; 우성범 외, 2009; Bradbury et al, 1996). 따라서 상담자는 기혼여성이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에게 책임귀인을 하는 인지적 추론 과정을 탐색하고 적절한 상담적 개입을 통해 부부친밀감 향상을 도울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책임을 더 크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유지하려는 욕구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Zuckerman, 1977). 상담자는 기혼여성이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배우자를 탓하는 정도를 파악한 이후, 기혼여성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마음을 헤아리면서, 무의식적으로 배우자의 행동에 초점을 두며 책임을 돌리는 인지적 과정을 설명하고, 기혼여성이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배우자에게 책임귀인하는 이유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후 기혼여성이 배우자가 보인 행동의 이유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사용이

배우자 책임귀인을 더 유발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불쾌한 정서를 축적하고 악화시키며 (이지영, 권석만, 2010)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도록 만든다(구자윤, 2021). 이에 상담자는 기혼여성 내담자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지 않도록 도움으로써 배우자 책임귀인을 줄이도록 도울 수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 감정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우며(Avigail & Matthew, 2017/2020), 내담자가 부정정서를 자각할 때 즐거운 일을 상상하거나 자신이 겪은 상황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다(곽정임, 서미아 2015; 서미아, 2015; 이정애, 2014; Greenberg, 2008; Johnson, 2004).

셋째, 기혼여성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더라도 배우자 책임귀인을 줄일 수 있다면 부부친밀감 형성 저해를 막을 수 있다. Berne(1961)은 교류분석을 자신과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자기긍정(I'm OK)과 타인긍정(You're OK), 자기긍정(I'm OK)과 타인부정(You're not OK), 자기부정(I'm not OK)과 타인긍정(You're OK), 자기부정(I'm not OK)과 타인부정(You're not OK)의 4가지 인생태도를 제시하였다. 타인부정의 인생태도를 취할 때, 자신에게 책임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느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긍정적인 인생태도로 배우자와의 관계와 결혼 만족도가 향상되었다는 선행연구처럼(김경화, 2003; 백은영, 2011; 허조은, 2009), 기혼여성의 인생태도를 자기긍정과 타인긍정으로 변화시켜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배우자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배우자 책임귀인을 줄이고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도록 한다면 부부친밀감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혼여성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배우자 책임귀인을 많이 하고 이는 부부친밀감을 저하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기혼여성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사용을 확인하며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배우

자 책임귀인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배우자 책임귀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상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시함으로써, 상담을 통한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개입 방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부친밀감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으며, 이에 따라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연령, 자녀 수, 결혼 기간과 같이 부부관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의 간명성을 위하여 통제 변수를 포함하지 않았으나, 남예지, 장유나와 홍세희(2019)의 연구에 따르면 연령, 자녀 유무, 결혼 연차, 최종학력, 가사 분담 만족도 등에 따라 부부친밀감이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자녀 수, 경제 수준, 취업 유무, 교육 수준 등과 같은 변인을 모두 포함하여 기혼여성의 부부친밀감과 관련된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책임귀인이라는 인지적 요인에 초점을 두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원가족 분화 경험(김윤정, 양혜정, 2021), 초기 부적응 도식(한기명, 양혜정, 2020), 불안과 회피애착(정은정, 서미아, 2020) 등에 따라 부부친밀감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대처방식과 같은 행동적 요인, 개인의 신념과 같은 인지적 요인, 가족 지지나 사회 지지, 원가족 관계의 질, 자녀와의 관계 등 같은 환경적 요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기혼여성의 부부친밀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해 봄으로써 그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강혜숙, 김영희. 2008. “결혼초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 『가족과 가족치료』 16(1): 135-156.
- 곽성정, 우정희, 김남이. 2018. “성인여성의 성인애착, 책임귀인, 자아존중감이 친밀한 관계의 심리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1): 75-84.
- 곽정임, 서미아. 2015. “갈등관계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서중심 상담 적용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13: 157-223.
- 구아영. 2000. “부부갈등에 대한 자녀의 지각과 이에 대한 부모의 지각.”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자운. 2021. “성인애착 불안과 지각된 스트레스의 관계: 자아분화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길영란. 2012. “초기부적응도식, 스트레스, 회피대처행동, 정서조절, 책임귀인과 결혼만족의 관계.” 인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길영란, 박미란, 이지연. 2016. “초기부적응도식, 스트레스, 회피대처행동, 정서조절, 책임귀인, 결혼만족의 구조적 관계.” 『인간발달연구』 23(2): 105-129.
- 김경화. 2003. “상호교류분석이론에 기초한 부모교육이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자아개념 및 유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두길, 유영달. 2015. “중년기 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1): 117-191.
- 김성미, 이수림. 2018.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4): 186-201.
- 김성은, 정규형, 허영희, 우중훈, 김과현. 2018. 『AMOS 구조방정식 활용과 SPSS 고급 분석』. 서울: 한빛아카데미.
- 김소희. 2004. “스트레스 사건,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학생생활상담』 26: 5-29.
-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서울: 학지사.
- 김윤정, 양혜정. 2021. “기혼여성의 원가족 분화경험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성찰과 부부갈등 대처행동의 매개효과.”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 10(2): 227-251.
- 김정희. 2019. “기혼남녀의 부부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3(4): 57-73.

- 김지현. 2006. “조망수용, 관계귀인, 갈등대처행동 및 이성교제 만족도 간의 관계.” 『연세상담연구』 24: 122-142.
- 김희경, 이완정. 2022. “어머니의 자기 분화가 긍정적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정서 조절과 부부친밀감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아동과 권리』 26(4): 543-562.
- 남예지, 장유나, 홍세희. 2019. “기혼여성의 결혼가치관과 부부친밀감의 종단적 변화 유형 분류 및 영향요인 검증: 이중 변화형태 모형의 적용.” 『여성연구』 100(1): 5-34.
- 문혜숙. 1993. “부부적응과 성적적응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연구-도시 중산층 기혼남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민지. 2005.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 분화수준과 가족규칙 및 부부의사소통.”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희정, 변상해. 2017. “재혼부부의 자기분화, 부부친밀감, 부부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7): 236-252.
- 배병렬. 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백은영. 2011. “교류분석 이론에 기초한 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효과.” 평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미아. 2015. “이혼위기 부부에 대한 정서중심집단치료 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3(2): 291-313.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2. 『여성가족정책보고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설정훈, 박수현. 2015. “해군 장병의 스트레스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4): 361-384.
- 송종원, 김두길. 2017. “중년기 가족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심리교육복지』 4(2): 45-63.
- 신소희, 김정은, 남영주. 2021. “기혼남녀의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검증.” 『생애학회지』 11(2): 65-83.
- 안수진. 1997. “신경증적 경향성과 결혼만족도-책임귀인양식과 문제해결행동의 매개변인 검증.”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현의, 이나빈, 주혜선. 2013. “한국판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K-CERQ)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4(3): 1773-1794.
- 양동욱, 국혜윤, 백현경, 윤가현. 2012. “참가자의 성별, 피해 여성의 옷차림 종류와 음

- 주량 수준에 따른 성폭력 책임 귀인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7(3): 323-345.
- 우성범, 정미나, 성낙윤, 강총명, 양은주. 2009.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에, 책임귀인이 연애관계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879-895.
- 우종필. 2015. “구조방정식모델에서 다차원성 개념의 항목묶음 편향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44(4): 1131-1147.
- 유소영. 2000. “사랑 요소의 지각된 불일치와 책임귀인양식에 따른 이성관계 만족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인지. 2016. “기혼남녀의 애착안정성, 자기개방, 배우자지지가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성, 한덕웅. 2001. “부부관계에서 배우자 행동의 귀인이 결혼만족과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41-64.
- 이경성, 한덕웅, 강혜자. 1995. “사적 대인관계에서 행동의 원인과 이유의 설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9(1): 65-84.
- 이경희. 1995. “부부간 친밀감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33(4): 235-249.
- 이경희. 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애. 2014. “갈등을 경험하는 신혼기 부부의 정서중심치료.”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 권석만. 2010. “체험적 정서조절방략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95-116.
- 임전옥, 장성숙. 2003.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조절양식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259-275.
- 장선웅. 2008. “원가족 경험이 부부친밀감과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선웅, 정혜정, 이주연. 2011.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이 부부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1): 77-82.
- 장유나, 윤미리, 홍세희. 2020. “기혼여성근로자의 성역할인식이 일-가정양립에 미치는 영향-일만족도의 병렬다중매개효과.” 『아시아여성연구』 59(2): 115-155.
- 정문경. 2020. “부부의 회피대처행동이 책임귀인을 매개로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가족과 문화』 32(1): 156-192.

- 정복자. 2015. “부부의 마음챙김, 내외통제성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형(APIM) 적용.”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은정, 서미아. 2020. “중년기 부부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자기-상대방 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8(3): 383-403.
- 정이랑. 2013. “거부민감성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공감과 책임귀인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수영. 2020.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책임귀인의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우경, 김진숙. 2014. “대학생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2(1): 1-25.
- 최윤경. 2015.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친밀감과 부모공동양육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화석. 2013. “중년남성의 성역할 및 부부친밀감이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21. “기혼여성의 최근 이혼의 주된 이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01_2021BC027&vw_cd=MT_ZTITLE&list_
[검색일: 2023.5.10.]
- 하혜신, 김은정. 2007. “남녀 청소년에 따른 부적응도식, 생활스트레스,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우울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7(1): 268-269.
- 한기명, 양혜정. 2020. “중년기 기혼자의 초기 부적응 도식과 정서조절 전략에 따른 잠재계층 특성과 부부 친밀감의 차이.” 『복지상담교육연구』 9(2): 209-237.
- 한다솜, 김동일. 2022. “자기불일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몰입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3(4): 91-109.
- 허조은. 2009. “부부의 자아상태와 인생태도 및 결혼만족도의 관계: TA 이론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국외문헌

- Avigail, L. and Matthew, M. 2020.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수용전념치료』. 천성문, 조용재, 김정화(역). 서울: 학지사.
- Baucom, D. H., Sayers, S. L., and Duhe, A. 1989. “Attributional style and attributional patterns among married cou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4): 596-607.

- Beam, C. R., Marcus, K., Turkheimer, E., and Emery, R. E. 2018. "Gender differences in the structure of marital quality." *Behavior Genetics* 48(3): 209-223.
- Berne, E. 1961. *Transactional analysis in psychotherapy: A systematic individual and social psychiatry*. New York: Grove Press.
- Boden, J. S., Fischer, J. L., and Niehuis, S. 2010. "Predicting marital adjustment from young adult` initial levels and changes in emotional intimacy over time: A 25-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7(3): 121-134.
- Bradbury, T. N., Beach, S. R. H., Fincham, F. D., and Nelson, G. 1996. "Attributions and behavior in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marriag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3): 569-576.
- Bridges, L. J. and Grolnick, W. S. 1995.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self-regulation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N. Eisenberg(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Browne, M. W. and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 Epstein, N. B. and Baucom, D. H. 2002. *Enhance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or couple: A contextual approach*.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incham, F. D., Beach, S. R., and Nelson, G. 1987. "Attributional processes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3. Causal and responsibility attributions for spouse behavio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1(1): 71-86.
- Fincham, F. D. and Bradbury, T. N. 1987. "Cognitive processes and conflict in close relationships: An attribution-efficac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106-1118
- Fincham, F. D. and Bradbury, T. N. 1990. *The psychology of marriage: Basic issues and applications*. The Guilford Press.
- Fincham, F. D. and Bradbury, T. N. 1992. "Assessing attributions in marriage: The relationship attribution mea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3): 457-468.
- Garnefski, N., Kraaij, V., and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8): 1311-1327.

- Greenberg, L. 2008. "The clinical application of emotion in psychotherapy." M. Lewis, J. M. Haviland-Jones, and L. F. Barrett(eds). *Handbook of Emotion*, NY: Guilford Press.
- Gross, J. J. 1998. "The emerging field of emotion regulation: An integrative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3): 271-299.
- Gurman, A. S. & Fraenkel, P. 2002. "The history of couple therapy: A millennial review." *In Family Process* 41(2): 199-260.
- Halberstadt, A. G., Dunsmore, J. C., and Denham, S. A. 2001. "Spinning the pinwheel, together: More thoughts on affective social competence." *Social Development* 10(1): 130-136.
- Hamedanil, N. F. & Jahromi, R. G. 2019. "Effectiveness of group therapy using Transactional Analysis (TA) o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marital intimacy of betrayed women." *Journal of Psychological Science* 17(70): 745-753.
- Johnson, S. M. 2004. *The practice of emotionally focused couple therapy(2nd ed)*. New York: Brunner-Routledge.
- Joomann, J. and Siemer, M. 2011. "Affective processing and emotion regulation in dysphoria and depression: Cognitive biases and deficits in cognitive control." *Social and Personality Compass* 5(1): 13-28.
- Kimmes, J. G. and Durtschi, J. A. 2016. "Forgiveness in romantic relationships: The roles of attachment, attributions, and empath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42(4): 645-658.
- King, L. A. Hicks, J. A. Krull, J. L. and Del Gaiso, A. K. 2006. "Positive affect and the experience of meaning in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1): 179.
- L'Abate, L. 1999. "Taking the bull by the horns. Beyond talk in psychological interventions."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y* 7(3): 206-230.
- Litzinger, S. and Gordon, K. C. 2005. "Exploring relationships among communication, sexual satisfac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31(5): 409-424.
- Miller, G. E. and Bradbury, T. N. 1995. "Perceived benefit from child sexual abus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6): 1037-1043.

- Moss, B. and Schwebel, A. 1993. "Marriage and romantic relationship." *Family Relations* 42(1): 31-37.
- O'Brien, M. and Peyton, V. 2002. "Parenting attitudes and marital intimacy: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6(2): 118-127.
- Patrick, S., Sells, J. N., Giordano, F. G. and Tollerud, T. R. 2007. "Intimacy, differentiation, and personality variables as predictors of marital satisfaction," *The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15(4): 359-367.
- Patterson, C. H. 1984. "Empathy, warmth, and genuineness in psychotherapy: A review of reviews." *Psychotherapy* 21(4): 413-438.
- Roberts, S. 2004. "Till death do us part, or whatever." *New York Times*, 4014.
- Shaver, K. G. 1985. *The attribution of blame: causality, responsibility and blameworthiness*. NY: Springer-Verlag.
- Tashiro, T. and Frazier, P. 2007. "The casual effects of emotion on couples' cognition and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4): 409-422.
- Waring, E. M. 1984. "The measurement of marital intimac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0(2): 185-192.
- Weiner, B. 1985. "Spontaneous causal thinking." *Psychological Bulletin* 97(1): 74-84.
- West, S. G., Finch, J. F., and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R. H. Hoyle(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56-75.
- Zuckerman, M. 1977. "Development of a situation-specific trait-state test for the prediction and measurement of affective respons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4): 513-523.

Abstract

The Effect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f Married Women on Marital Intimacy
– Mediating Effect of Spouse Responsibility Attribution

Kim, Min-Hye
(Pusan National University)

Yoo, Soon-Hwa
(Pusan National University)

Chung, Ae-Ree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 of spouse responsibility attribu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ed women'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marital intimac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both online and offline surveys of married women residing in Cities A and B. A total of 485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after excluding two insincere responses, 483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conduct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spouse responsibility attribution, and marital intimacy were all significantly correlate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pouse responsibility attribution, but a negative correlation with marital intimacy. Spouse responsibility attribut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marital intimacy. Second, in the final model, spouse responsibility attribution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ed women's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marital intimacy.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esented.

Key word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marital intimacy, spouse responsibility attribution, married women, mediating effect

- 투 고 일 : 2025년 8월 26일
- 최초심사일 : 2025년 10월 10일
- 게재확정일 : 2025년 10월 17일